

평화 의 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76 10월호

숨지 않는 인생으로 삽시다

성경 / 창 3:8



사람이 어디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악마도 보고 있으며 필경 사람앞에서도 다 드러날 것이니, 사람들이, 행한 선악간에 모든 일이 때가 되면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누구 앞에서도 숨지 않는 뜻뜻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누구 앞에서도 숨는 일이 없이 버젓하게 살고 당당히 싸우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숨습니까?

사람들이 숨는 까닭

첫째로 자신은 약하고 원수는 강하여 대적할 힘이 없는 까닭에 형이 때 앞에 숨듯 원수가 무서워서 숨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숨으며, 심지어는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하려고 숨어 있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다가 몸을 감추고 숨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동산 나무 수풀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서는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성을 쌓아 놓고 그 거짓말 속에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숨을만한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숨은 결과

“길은 숨겨도 냄새는 못 숨기느니라”고 한 옛 사람의 말처럼 사람이 어디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악마도 보고 있으며, 필경 사람 앞에서도 다 드러날 것이니, 사람들이 행한 선악간에 모든 일이 때가 되면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였던 선한 일이 드러나면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나, 무슨 잘못한 것들을 숨기었다가 드러나면 못 사람의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 영육이 아울러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숨을 필요가 없는 신자가 되겠습니까?

숨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내가 무엇 때문에 범하였던 여러가지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내

어놓고 나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둔 사람만이 하나님 앞과 악마 앞과 사람 앞에서 숨을 일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미리미리 준비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숨는 일이 없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준비를 잘 갖춘 군사만이 전쟁에 담대히 임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을 읽고 정성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마음그릇에 기름을 가득 준비한 성도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숨는 일 없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마중나갈 것입니다.

세째로 사람이 젊고 건강한 때라도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서 맡겨주신 일을 좀 더 바로 하고 많이 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내게 있는 지식과 기술과 권세와 재산을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해 일하는 사람은 언제 누구 앞에서도 숨는 일이 없고 담대하고 능률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네째로 한결을 더 나아가 범사에 하나님만 믿고 부환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하심을 받는 천국의 시민이 된 신자는 언제든지 끊임없이 성도를 감동시키고 감화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앞에도 숨지 않는 참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모든 사람에게 배정되어 있는 하루 24시간을 누구 앞에서도 숨지 않는 능률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 이미 범한 죄는 철저히 회개로 청산하시고 적은 이해 문제를 초월하여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사람으로 미리 준비하는 실력자가 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숨지 않는 충성스런 사람으로 주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범사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어 이 세상에서 담대히 복되게 살다가 부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덕아, 산아 나를 가려다오”하며 숨는 일 없게 다같이 성도가 된 신부의 등불을 밝히켜들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마중을 나가시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월간 증현

10월의 행사

- 1/주일학교 각부 교사친교회
- 2/남전도회임원회
- 3/성경암송대회 · 성경고사대회 · 정기 제직회 · 재정위원회 · 전사회임원회
- 4/산업전도회임원회
- 10/남전도회월례회 · 여전도회임원회 · 월간증현 10월 발행 · 남전도회헌신예배 · 월간증현편집위원회
- 14-17/추기성배식
 - 14, 15 문답식
 - 15 세례식
 - 17 성찬예식
- 17/여전도회 · 재정위원회 · 전도위원회
- 24/구역권찰회 · 여전도회헌신예배
- 25-27/빌립보서 특강(정기성 목사)
- 31/해의복음선교회월례회 및 헌신예배

10월호 차례

- 〈설교〉 숨겨진 인생으로 살자 / 김창인 목사 2
- 〈특집〉 기독교의 직업관 / 신성중 목사 4
- 〈기획연재④〉 개척교회 / 오태웅 8
- 〈교회와 성례식〉 세례와 성찬 / 김재창 목사 7
- 해외에서 온 편지들 9
- 〈책소개〉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 정관일 목사 13
- 〈캠페인〉 사랑과 구제물 10
- 〈찬송가 해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1
- 〈1200자칼럼〉 노처녀 · 노총각론 / 이형수 11
- 〈여름행사 보고〉 이제는 안정된 가을에 12
- 해외의 교우 주소록① 10
- 〈11월 구역공과〉 주기도문 14
- 〈구역소식〉 15
- 〈구역장 노우트⑨〉 신앙지도의 지킴(1) / 백성룡 목사 15
- 〈교회 뉴스〉 1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9
- 〈편집후기 · 표지설명 · 기사작〉 18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권 두 언
> > >

열매맺는 계절 되게 하자

있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지 않기 위해 힘써 일하는
신앙의 농부 되자!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중현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의무가 따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요 15:16). 즉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마 5:16)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나타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열매인 것이다.

그러려면 요 15:5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실행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뿌리와 줄기 없는 가지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자.

그뿐 아니라 열매 맺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가지는 다 잘라 주어야 한다. 보다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의 잔액이 다른 곳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쁜 습관인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구습 그대로 간직할 채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꾸고 거름을 주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말씀의 비료와 기도의 물을 주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충실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들리는 바로는 금년에도 풍년이 들어 3천 5백 만석 이상의 쌀을 추수할 것이라고 한다. 열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추수할 열매가 없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금년 추수감사절 때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결과를 잘 안다(막 11:13-14, 20-21; 마 21:18-21). 본래 무화과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열매를 맺는 법인데, 잎이 무성할 때까지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사람보기에만 이것 저것 번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그런 교회와 개인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하는 신앙의 농부가 되자.

<주간>

기독교의 직업관

.....◇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
◇ 에 다 귀한 것이다. 노동이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예배행위처럼 중 ◇.....
◇ 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될 직업이 있 ◇.....
◇ 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

신 성 종 목사

(대학부 지도·원전총원 주간)

>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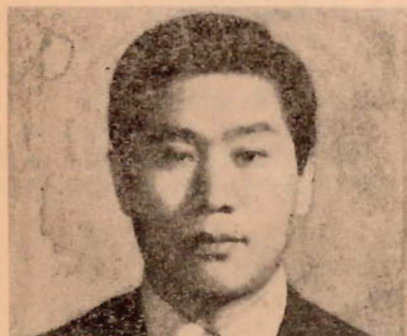
1. 종교개혁 이전 로마교회의 직업관
2. 헬라인의 직업관
3. 한국인의 과거 직업관
4. 종교개혁자들의 직업관
5. 성경에 나타난 직업관
6.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7. 직업을 가진 자의 바른 자세

기독교의 직업관은 종교개혁을 전후해서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즉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교회의 직업관과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자들의 직업관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그 견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교회의 직업관

로마교회에서는 직업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둘로 나누어 생각했다. 즉 이원론적 입장에서 신부나 수도사가 되는 것은 거룩한 직업이지만 손이나 몸을 사용하는 세상일은 다 속된 것이라는 성속(聖俗)의 개념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 사상은 성경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며 사실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본 해석이었다.

물론 요한의 복음서나 서신에 「빛과 어둠」의 대조



〈모든 직업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소명이므로 소명감 없는 게으른 성직자보다는 소명감을 갖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가정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고 말하는 철학박사 신성종 목사〉

를 이루는 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위에서든 논하겠지만 페르샤의 조로아스터 신앙(이 세상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헬라의 이원론과도 다르다.

2. 헬라인의 직업관

로마교회의 직업관은 헬라의 직업관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제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헬라인들은 철학·정치 같은 정신노동을 하는 직업을 귀하게 보고 손으로 하는 노동은 노예들만이 하는 천한 직업으로 보았다. 그래서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doulos)란 말은 「노동자」란 말이 되기도 한다. 즉 육체적 노동이란 노예들만이 하는 천한 직업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헬라는 철학·정치 등의 발달은 가져왔으나 공업이나 상업 및 농업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런 발전도 없었다. 헬라 철인 가운데 대표적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들의 직업관을 쉽게 알 수 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손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 장인(匠人)들은 이상향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의 이원론적 사상 때문이었다. 즉 정신은 귀하나 육체는 더럽고, 따라서 정신 노동은 귀하나 육체 노동은 천하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육체의 상태를 타락시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모두 천한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천하게 만들고 한 곳으로만 마음을 쏠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의 봉건시대의 직업관도 이와 같다는 점이다.

3. 한국인의 과거 직업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직업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즉 사·농·공·상(士農工商) 다시 말해 선비는 가장 귀한 직업이고 그 다음이 농부요 공장(工匠)이나 상인이 되는 것은 천한 것이요 양반이 할 일이 못된다고 해서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쟁이」·「꾼」 같은 말을 붙였으니 미쟁이·맹쟁이·대장쟁이·농사꾼·장사꾼·평꾼·지개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신약에 나타난 노동관은 말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이지 그것이 거룩한 일이나 속된 일이나의 구별은 없다. 물론 신앙을 전제로 하고……

이 현상은 해방 이후 대학 진학에도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모여들게 되어 오늘의 고등교육을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오늘에 와서 그 현상에 약간의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인의 머리 속에서 사·농·공·상의 계급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종교개혁자들의 직업관

과거 로마교회의 성속(聖俗)의 개념에 근거한 직업의식을 근본적으로 깨뜨린 사람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였으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학화시킨 사람은 요한 칼빈이었다. 이제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틴 루터는 그의 「기독교인의 자유」(전집 2권, 332페이지 이하)와 「공개서한」(전집 5권, 15페이지 이하)에서 그의 유명한 이신득의(以信得義) 교리를 주장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그의 「교회의 바빌론 포수」(전집 2권, 279페이지)에서 만민제사장(萬人祭司長)주의를 말했다. 이 교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란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로마교회엔 하나의 혁명적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신부는 하나님과 속인들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적 존재로 본 것을 루터가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반 신도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성속의 구별을 없앤 이 주장은 마침내 일반 직업도 소명(Beruf)이라는 새로운 직업관을 말한 것이다.

이 주장이 칼빈에 와서, 즉 그의 「기독교 강요」(III, X, 6)와 「고린도서 주석」(9권, 153페이지)에서 루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의 주석에서(“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저배라”) 칼빈은 “이 원리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각자는 그의 소명에 만족해야 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다른 것으로 그의 직업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칼빈은 실제로 이 사상을 제네바에서 적용했으며, 이것은 또 그의 문화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막스 웨버는 그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4-5)에서 서구의 자본주의는 칼빈주의에서 유래한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란 귀결에서 “화폐취득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추구되는 한, 그것은 직업에 대한 근실성(勤實性)의 결과인 동시에 표적(表迹)”이란 자본주의의 정신이 나온 것이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대부분 중산계급의 상인 출신인 것은 결코 우연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아들든 칼빈의 직업관은 제배바·화관·뉴잉글랜드·영국 및 미국 동지에서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은 돈을

사랑하는 오늘, 타락한 자본주의와는 구별해야 할 것 같다.

하여간 인간이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의 모체인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그 목적을 망각할 때 그것은 곧 유토피아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본다. 사실 오늘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는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탈한 “오직 화폐의 영광을 위하여”로 나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칼빈주의가 간음하여 낳은 사생아가 바로 오늘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인 것이다. 웨버가 인용한 화관 선장의 말 즉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옥에까지라도 향해하여 뚫어타는 것조차 불사하겠다”(Ibid. p. 49)란 타락한 자본주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5. 성경에 나타난 직업관

구약성경에 보면, 두개의 직업관이 나타나 있다. 열핏 보기엔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상호연결된 하나의 깊은 진리를 보여준다. 먼저 창세기 3장 17,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땅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라고 함으로써 노동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의 저주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직업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 3장 22절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분(分福)이라”고 함으로써 노동 즉 직업이란 하나의 의무요 은혜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래 노동의 시작은 범죄의 결과에서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의무로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노동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노동관은 어떠한가?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노동을 통하여 그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며 심지어 영생에 대한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이지 그것이 거룩한 일이나 속된 일이나 하는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을 하나의 종교적 차원에까지 끌어 올려서 본,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예배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노동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예배행위와 같은 종교적 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없이 직업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실한 의미에서 직업에 얼마나 충실하냐 하는 것은 인간적 표준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앙은 직업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된다. 이런 신앙의 전제 밑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홉킨스(Hopkins)의 말은 아주 적절한 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

도움이 아니다. 노동도 마찬가지다. 나무를 베거나 대를 보를 다듬거나, 말을 끌거나, 그 모든 것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날마다의 음식을 감사함으로 들며, 절제의 생활을 가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도를 드리기 위해 들려진 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거름바가지로 든 남자의 손이나 구정물통을 든 여인의 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홉킨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자의 정신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업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반드시 직업훈련을 시킨다. 그것은 그들의 속담에 잘 나타난다. "자식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이다." 위대한 랍비인 샤마이도 "일하기를 좋아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바울의 직업관은 어떠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 12절에서 중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한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말한 것은 직업이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목수란 직업을 가지셨으며, 바울도 천막을 만들고 깎는 직업을 가졌었던 것을 볼 때에, 기독교만큼 노동을 신성시하는 종교는 없다. 그러면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우리는 직업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6.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원리적 면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다 귀한 것이다. 노동이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예배행위처럼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볼 때엔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될 직업이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이 세상에는 23,559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한다. 물론 창녀나 소매치기 같은 것이 직업이나 아니냐 하는 직업의 정의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은 제외하더라도, 신앙적 면에서 우리가 갖지 않는 게 옳은 분야가 있다. 이제 그것을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서 나누어 보자.

첫째는 남에게 해를 주기 쉬운 직업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도박(비록 그것이 정부에서 허락해도) 사업이나, 대중을 즐겁게 하는 연예·접대업 중에서는 남에게 해를 주는 게 많고, 또 양조장이나 연초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두번째는 어떤이에게는 유익을 주나 또 어떤이에게는 해를 주는 직업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동성연애사업이나 한때 악명을 떨친 백인용병 같은 직업이 바로 그것이다.

세번째는 사회에 직접적 해를 주지는 않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직업이다. 예를 들면 대중문학이나 경마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직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직업은 선택되어야 한다. 이것을 종교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믿음의 공동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7. 직업을 가진 자의 바른 자세

노동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방법 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다 천직(天職)이요 소명(Klésis)이며 calling이다.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것은 오늘의 직업관이 하나님 앞에서의 천직으로 보지 않고 생활의 수단으로만 보는데 대한 옹호란 껍에서 이해가 가나 성경적 직업관은 결코 아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소명이며 다르다면 일반직업이 일반적 소명인데 반하여 목사·전도사 등 소위 성직은 특별소명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고 성직자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솔직히 말하면 소명감 없는 게으른 성직자보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가정부(식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직업인의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크게 두가지의 태도가 있다. 하나는 소극적 태도이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망을 받지 않게" 하라는 자세와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 태도로서 디모데 2장 10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두 태도를 항상 지녀야 한다. 더우기 위에서 말한 적극적 태도는 앞에서 말한 소극적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칼빈주의의 근본정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와 같은 표현이다.

끝으로, 루터와 칼빈의 직업에 대한 자세의 비교는 대조적이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루터는 분업적 직업의 노동이 「이웃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자세에서 충성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사회적 활동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루터는 인본적 동기에서 직업을 보았고, 칼빈은 신본적 동기에서 직업을 보았다. 이런 이 두 개혁자들의 견해는 직업론 아니라 모든 그들의 신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독교의 직업관을 요약하면 첫째로 모든 직업은 다 종교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소명(calling)이며, 둘째로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엔 자기의 소질이나 사회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사회에 유익을 주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셋째로 말해진 직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믿음을 떠난 직업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직업은 종교적 차원에까지 승화되어진 하나의 예배행위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김 재 창 목사

〈부목사·노년부 지도〉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새 언약의 유익한 은혜를 감작적 표로서 표시하여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례(sacramentum)라는 말은 성별하여 헌납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바치는 예식이다.

성례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 예식(창 17:7-14, 출 12:21-28)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예식(마 28:19, 마 26:26-28)이 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성세, 견신, 고해, 성체, 혼배, 신품, 종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것도 아니며 성경 이하의 것도 아니다.

1. 세례

세례는 공인된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게하고 밀개하는 의식이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βαπτίζω인데 「찍는다, 적신다, 뿌린다, 잠근다」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세례는 물로써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뜻을 가진 예식이다. 세례의 참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 것을 인치며 표하는 것이다(롬 6:4-6, 갈 3:26-27, 골 2:11-12, 고전 12:13).

1) 세례의 종류

(1) 물세례—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마 28:19)

(2) 성령세례—예수님께서 친히 주신다(마 1:8).

2)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또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하셨으니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이유는,

(1)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2)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역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3)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세례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을 뿐 주례자의 인격이나 덕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3)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

녀들이 받을 수 있다(마 16:16, 마 28:19, 창 17:14, 롬 10:10).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각 사람의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중심과 신앙고백의 진실성 여부는 하나님께서만 바로 아실 것이니 집례자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다짐할 것 뿐이다.

4) 세례 받는 자의 유익한 은혜가 무엇인가

(1)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2)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획득(신분 변화)

(3) 주의 상에 참여하는 영광

(4)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헌신자의 사명의식

(5) 영원한 천국 시민의 자격증 확보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생활을 살게 된다.

2. 성찬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0예식이다(마 26:26-29, 막 14:22-25, 눅 22:19-20, 고전 11:23-26).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지켜야 할 제도이며, 천국에서도 주님과 한 자리에서 행할 영원한 제도이다(마 26:29). 성찬은,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적 죽음임을 기념하고

(2)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받아 누리며

(3) 약속된 신령한 은혜와 모든 축복을 공급하는 방편이 되고

(4)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적 교제를 더욱 뜨겁게 하는 길은 뜻이 있다.

1) 성찬에 대한 삼대 주장

(1) 화체설—로마 가톨릭교회

(2) 공체설—루터교회

(3) 기념설—칼빈주의 장로교회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영적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영적 일재를 상징하는 표이다.

2) 성찬식의 집례자와 참여자

성찬식은 공인된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다. 집례자는 성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그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즙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한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세례 받은 성년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재벌에 있는 사람과 분별력이 없는 유아는 참여하지 못한다. 성찬은 주님의 고귀하신 살과 피를 감사있게 기념하는 예식인고로 네가지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1) 감사하는 마음 (2) 회개하는 마음 (3) 결심하는 마음 (4) 새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마다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

개척교회

오 태 용

(월간종원 간사·중동부 교사)

2,892개 교회가 있는 우리 교단은 금년의 성령강림절을 기점으로 「만교회운동」을 벌여 지금 전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 교회라니 일견하여 너무 엄청난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일반 교회 그 이상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 강산에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버려진 땅」이 수없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제 우리교회는 일면 자체의 부흥에 힘쓰고 동시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우리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고 있다.

1. 개척교회 지원의 어제와 오늘

우리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이다. 청년부가 교회성립 3년만인 1956년 9월 서울 시내 돈암동에 성암교회를 개척한 이래, 이듬해인 1957년에 남전도회는 서울 정동에 동암교회를 개척하고 1962년에 자립을 시켰다. 이것을 필두로 남전도회는 경기도 소사의 상리교회(1962~67), 경기도 고양군 중면의 장항오리교회(1965~69), 경기도 용인군 나한자촌의 새마을교회(1968), 성동구 마천동의 동원교회(1969~72)를 개척·자립시키고 현재는 경기도 가평군 내사리에 장락교회, 경기도 여주에 금현교회를 지원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 인근에 한군데 더 개척교회를 모색 중에 있다.

여전도회는 의정부 중앙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1958~59) 충남 부여 제일교회(1959~64), 시내 장성교회(1966~67), 성북구 상계동에 상원교회(1968~72)를 개척·자립시키고 현재는 구로공단 내의 성광교회, 안양의 천지교회, 개봉동의 성원교회를 지원한다.

이 외에 전도위원회 지역 개척교회라는 것이 있다. 어떤 지교회에서 지원을 청원하였는데 남·여전도회가 이미 그 능력한도인 3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을 때, 이를 교회에서 받아들여 지역하게 된다. 현재 이에선 전주 화정교회, 제주 서남교회, 신림동의 남부교회가 있고 특수 지역으로 임진강 너머에 통일촌교회를 설립하여 최병도 목사로 하여금 최전방 주민과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 이 통일촌교회는 통일이 될 때까지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2. 개척교회 지원에 따른 문제점

우리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해 왔고 또한 재 9개의 지교회를 지원 중에 있다. 지교회라 함은 우리 교회가 행정권을 갖고 모든 것을 보고 받으며 교역자의 생활비를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교회이다. 현재의 각 지교회 지원 실태를 보면 금현교회와 같이 교회당 건물과 번소까지 지어주고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그친다. 이러다 보니, 피지원 교회에 일종의 의타심이 생겨 목적한바 자립에의 길이 요원한 교회가 생긴다. 일체의 모든 것을 후원교회가 책임져 주니, 우리는 그저 예배나 드리고 잔다는 식의 타성이 은연중에 작용한다는 말이다. 또 어떤 교회는 입지조건이 나빠 도저히 자립할 전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처음 선정할 때 정실에 흐르고 인정에 끌려 그러한 불실을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난처해진 것은 우리교회가 된다. 계속 지원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이것은 과거 우리교회의 불찰이었다. 계획성있게 개척교회 지원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발족을 본 전도위원회는 이의 실효를 기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선정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생긴다. 우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교회를 자립시키려 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립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단기지원과 장기지원으로 구분하여 조급한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단기지원책을 시일이 걸릴만한 교회는 장기지원책을 써서 부실교회를 해소해 가려 하는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 구상중인 개척교회 선정기준은 대강 이렇다. ① 대상지역은 대전 이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활비 보조는 누감적으로 한다. ③ 제직은 반드시 십일조를 한다. ④ 1년에 몇명씩 의무적으로 새신자를 획득한다. ⑤ 새벽기도·성경공부 등에 힘쓴다. 한마디로 그 교회의 신앙면·경제면·활동면을 고려해서 도회지를 3년, 벽지는 5년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의 지원조건 중 ③④⑤항은 피지원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들이다. 특히 새벽기도와 성경공부—사실 이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천이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영적 부흥 없이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전망과 제언

이상에서, 우리교회의 개척교회 지원실태를 살폈거니와 이 사업은 해외선교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우리교회의 사명이다. 사해의 비극을 잘 아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써버려야 한다. 그때야 또 채워주신다. 우리교회에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지원해야 한다.

이제 전도위원회는 속히 자체 보강을 하고 개척교회 지원책을 강구하여 100% 자립의 신속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생활비나 대는 물량적 지원에서 과감히 탈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본다. 이에선 사도 바울의 본보기가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 (*)

해외에서 온 편지들

- ☐..... 해외에 나가 있는 충현 교우들로부터 온 편지를 소개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
☐.....를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계속 성도의 교제란을 마련하여 취급하고자 한다.
☐.....한피나는 형제임을 잊지 말고 늘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열심히 봉사 못함 후회돼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중에 교회 앞과 집사님 가정에 평안하옵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에 이 부족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내주신 월간충현 8월호 반갑 게 받았읍니다. 오랫동안 궁금하던 중에 은혜있게 애 독하였으며 모교회가 주님의 은혜 중에 이모저모 부흥 되는 소식을 보니 무척 기쁘기 그지없읍니다.

이국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여의 치 못하여 무척 어렵습니다. 이곳도 한인교회(기독교 교장교회) 있습니다만 그것도 모든 사정으로 주일 오후 3시경 모여 잠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외는 특별한 집회나 모임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교인 대부분 이 간호원과 일부 가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 사님 한분이 여러 교회들(지역적으로) 맡아서 봄으로 문제점들이 있는 듯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종종 우리의 모교인 충현교회 교인들 이 부러워지며 역시 지난 날에 좀더 열심히 봉사 못한 것이 없었는지 후회되기도 합니다. 허나 다시 좋은 기회 주실 것을 믿으며 끝으로 저를 길러주신 모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독에서 김 광 려 드림
 <집사·전 조동부 교사>

김목사님과 함께 지내

그동안도 주님 은총 안에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이 제 한 더위도 지났으니 좀 덜 바쁘실 것같아 소식 드 립니다. 딸들임이 없는 이곳 3년간의 여름이지만 올해 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바른 틈에 인 사드리는 것이랍니다.

미리 월간충현을 한 집에 두 통이나 보내주셔서 어 찌나 감사한지요. 다름아니라 제일성가대 권금신 씨가 저와 한방에서 지내답니다. 그리고 8월 5~9일까지 김 창인 목사님과 김영한 박사님이 제방에서 지내셨지요. 아마 오래 멀리 떠난 사람 아니면 이 기쁨을 모를 거 예요. 처음엔 서울사람만 보아도 혼자 싱글거렸는데 목사님까지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니 복에 겨운 사람들 은 이해가 잘 안될 큰 은혜 받았지요. 특히 김목사님 흰 모시두루마기 입으시고 독일 교인들 앞에서 한국교 회의 세례선교에 대해 확신있는 말씀과 당당히 찬송가 를 높이 부르실 때는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 요.

그리고 월간충현은 계속 한 집에 두통 보내주세요. 한부는 나뉘고 보고 다른 한부는 이곳교회 어른들께 보이 려고 합니다. 그럼 또 주 안에서 내내 즐거운 시간을 맞으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서독에서 윤 혜 자 드림
 <전 유년부 교사>

한자도 놓치 않고 보는 「충현」

안녕하십니까? 늘 충현교회를 생각케 하는 월간 충현 기자님! 저는 보내주시는 덕분에 고국을 생각하 고 교회를 생각할 기회가 있군요. 첫장부터 끝장까지 글자 한자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읽어대는 정성이 생기는군요. 사진 한장 볼 때 옛 건물과 옛 모습을 생 각하기도 하지요. 몇번 버스를 타고 어느 종점에서 내 려서 육교를 통해 교회가던 충현 식구였던 나 자신이 늘 그림군요. 친정 같았던 교회를 떠나고 이제 월간충 현으로 매달의 행사를 볼 수 있으니 흐뭇해요.

비싼 우표를 붙여서 이곳까지 소식 주시니 더욱 감 사할 따름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알려 드립니다. 아마 도 이곳 우체부의 수고도 덜어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 니다. 계속 월간충현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늘 충현 식구들과 기자님들에 게 내리시길 먼 곳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김 혜 신 드림
 <전 청년회원·집창인 목사의 영애>

성가대 봉사 귀한 줄 알고

감사의 나날이 계속, 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 식 반갑게 듣고 그곳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듯했 어요. 교회 모든 분들께 일일이 인사 못 드림을 용서 해 주시고 소식 전해 주세요. 한분 한분 모두에게 빠 짐 없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이 연속되는지 저는 그저 예비해 주시는 대로 따라만 갈 뿐 밤낮 계속적으 로 감사, 감사 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곳 제가 나가는 교회가 한국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님이 파송된 교회예요. 젊으신 목사님 아래에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들 모든 조건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주일 오후 4시에 주일대예 배를 드립니다. 독일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 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때가 되죠.

충현 성가대가 7월 16일-17일 수양회를 벌써 가졌 겠군요. 어디를 가나 저는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저의 직분인 줄 알고 이곳 성가대에서 일합니다. 내일 도 헌금 찬양을 드려야 하겠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영원한 하늘나라를 찬송, 노래하 며..... 지금 이곳이 25일 새벽 1시니 그곳은 9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가대 연습이 시작될것네요. 오늘 예 배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빌겠어요.

서독에서 권 금 신 드림
 <전 제일성가대 솔리스트>

해외에 계신 총현의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해외교우 주소록①>

..... 해외에 나가 계신 총현의 교우들의 주.....
.....소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매월 보내는.....
.....「월간 총현」 받으신 분은 일차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의 착오나 이전 등은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3개월에 걸쳐 해외에 계신 총현의 교우의.....
.....주소록을 게재코자 하오니 피차 성도의.....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Rev. Chun Il Cho(조천일 목사)
6526A Chanslor Ave. Bell, Calif. 90201,
U.S.A.
- (2) Rev. Paul S. Suh(서만수 선교사)
P.O.Box 2355 JKT Jakarta, INDONESIA
- (3) Rev. Yun Ho Lee(이연호 선교사)
P.O.Box 2355 JKT Jakarta, INDONESIA
- (4) Rev. Jong Man Hong(홍종만 선교사)
KOREAN UNION CHURCH Room 1107
Korea Center Bldg. 119-121, Connaught
Road, Conral, HONG KONG
- (5) 俞炳世 博士(유명세 집사)
日本國 北海道 廣尾町 町立保險病院 外科
- (6) Mr. Soo Jung Hong(홍수정 장로)
2427 River RD Corona Calif. 9120, U.S.A.
- (7) Mr. Dong Bang Ji(지동방 장로)
1047 S Catalina St.(Apt5) L.A.Calif. 90006
U.S.A.
- (8) Mr. Kwang Chul Kim(김광철 장로)
1505 So Hoover St. Apt4 Losangeles Calif.
90006 U.S.A.
(SHOP) The Good News Book Center
3444 West 8th St. Losangeles Calif. 90005
213-389-9002 U.S.A.
- (9) Mr. Hyun Duk Yim(임현덕 장로)
5923N. Artesian Chicago Ill 60645 U.S.A.
- (10) Mr. Dong Kyu Lee(이동규 장로)
6261N. Clark St. Chicago Ill 60660 U.S.A.
- (11) Mrs. Bong Ge Moon(문봉계 권사)
4933 Gainsborough DR Fair Fax 22030 U.
S.A.
- (12) Mrs. Ki Ryun Park(박기련 권사)
#151 Rua Bueno De Anderade Liberdade
Saopaulo BRASIL
- (13) Mr. Won Kyu Lee(이원규 씨)
8534E. Pueblo St. Roscmead Calif. 91770
U.S.A.
- (14) Mr. Yi San Ro(노이삼 집사)
6614 N. Ashlande Ave. Chicago Ill. 60625
U.S.A.
- (15) Mr. Woo Am Choi(최우암 장로)
69-5643 Ave. Woodside N.Y. 11377 U.S.A.

□ 캠페인/사랑과 구제를 □

금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해를 보내야 하는 우리들은 또다른 하나의 제목을 붙잡고 남은 76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랑과 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적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전령하는 모습>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약성경에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세 : 354)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주 웃는 얼굴 뵈올 때
내 영에 기쁨 있네

물질도 감히 똑같이 풍부할 수 없는데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크리스찬은 참으로 욕심쟁이라고 얘기한다. 어쨌거나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햇빛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항상 느끼며 사는 우리들은 상당한 부자임에 틀림없다.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Eliza Edmunds Hewitt, 1851-1920)여사의 작시에 존 스웨니(John R. Sweeney, 1837-1899)의 작곡이다.

히윗 여사가 필라델피아에서 학교 교사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성질이 비뚤어져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소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잡아 보려는 노력에서 그를 타이르고자 할 때, 그 소년은 침직한 지붕 스테이트로 히윗 여사의 등골을 사정없이 때렸다.

여사는 뼈에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고 6개월이라는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에게는 오랜동안의 시련이었던 것이다.

그후 6개월이 지나서 어떤 따뜻한 봄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산보 나가도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 아직 완쾌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병상의 고통 속에서 또 다시 공원에 나가게 되니 그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실로 오랫동안의 외출—따뜻한 외기와 접하는 육신의 외출이었으며, 병중에서 쇠약해진 영혼이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접하는 그녀에게 대작연은 기쁨으로 모두 다 그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았고 따뜻한 태양은 그에게 한없는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소중한 감격을 느꼈지만 더욱 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햇빛이 그의 영혼의 마음 속에 밝게 비추심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바로 집에 돌아와 이 감격의 기쁨을 찬송시에 옮겨 놓았다.

여사는 이런 노래를 속으로 불렀는지도 모른다.

너는 그 따뜻한 나라
하늘을 꽃으로 내려오는 증제의
꽃의 사랑,
허물어진 것 잃어버린 것 정지된 것의
일체를 환기주는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정수의 총화—

이 찬송곡 선사인(Sunshine, 햇빛)은 존 스웨니(John R. Sweeney)가 작곡하여 1887년 스웨니와 윌리엄 커크패트릭(William J. Kirkpatrick)등이 편찬한 「기쁜 할렐루야(Glad Hallelujahs)」에 제 84장으로 처음 실렸었다. 원문 첫 행에는 “오늘 내 영혼에 봄이 왔다(There's Springtime in my soul today)”로 시작했었고, 이 찬송가 곡명은 찬송가 위원회에서 명명한 것이다.

170021 찬송

노처녀 · 노총각론

이 형 수

우리교회의 많은 특징 가운데 또 하나를 꼽으라면,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뭇 주저없이 「노처녀 · 노총각의 동성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처녀 · 노총각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며, 「안 갔다」 「못 갔다」를 전부 포함한다. 안 가고, 못 간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엄려스러운 특징은 어느 면에서는 꼭 다행스러운지도 모른다.

이는 많은 결혼 안한 처녀 · 총각들이 교회봉사의 은퇴기(?)를 결혼날짜에 맞추고 있는 점이다. 본인들은 물론이려니와 교회에서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 주고 있기에 엄려스러운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경향은 많은 경우에 자랑스럽게 승계(承繼)되어 노처녀 · 총각들에게 야릇한 열매감마저 자아내어 어서 속히 은퇴할 날을 재다짐하게 만드니 과연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봉사에서 쉬게 하는 것인가?

결혼에 대한 성서적 입장을 이야기하며, 흔히 말하기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축복의 제도, 소천국을 이룸, 하나님께의 영광 등 심득(心得)적 목적과 의의만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가장 중시해야 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어 돕고 위로하며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는 사실이다(지면상 전 4:9-12; 창 1:28; 2:18을 못 적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기에 결혼에 앞서, 「이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 생활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며, 그렇다면 결혼은 교회봉사의 은퇴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작인 셈이다.

이처럼 교회봉사를 결혼으로 끝맺으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결혼을 안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엄려스러운 특징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교회봉사를 마칠 날을 고대하는 노처녀 · 노총각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속히 결혼하여 교회봉사의 마침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이니……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던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란 말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은 교회봉사의 무덤」이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말임을 이야기하며 장가 가 보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기해 보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이제는 안정된 가운데

- 찬란하게 빛나던 여름도 저만치 멀쳐버리고 조용한 절서가 펼치는 가을을.....□
 □.....맞는다. 더운 열기와 싸움이라도 하듯 열심으로 애쓴 여름의 행사를 모두 마.....□
 □.....침하고 새로운 결실의 꿈을 안고 지난 여름의 풍성한 수확들을 다시 돌이켜.....□
 □.....본다. 주일학교 I·II부에서 실시된 여름행사(성경학교, 수양회)에 총 36일.....□
 □.....간에 연인원 학생 8,151명이 그리고 교사 1,282명이 참가했다.....□

금년들어 기능별로 조직된 교육위원회의 성과였다. 그것은 금년 여름 실시한 주일학교 9개부의 여름행사 결과 보고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년과 같이 열심히 편 여름이었다.

뚜렷한 목표 설정

해가 거듭될수록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확실히 되고 있었다. 금년도의 표어에 나타난 점으로 볼 때에 각 부가 ① 신앙의 생활화 ②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통한 확신 등으로 요약될 수가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청년부의 사경회중심과 처음 실시한 노년부 위로를 겸한 신앙 및 생활교육을 들 수 있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

또한 예산면에서 총 4,279,240원을 사용하였는데 각 부의 예산운영을 볼 때 대부분이 초과하였는데, 그 초과 범위는 2-9% 사이였다. 그러나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20-30%) 장소임대료와 그 부대비용으로 지출되어 하루속히 우리교회의 수양관의 건립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안 책정시에 다

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여 예산안 책정 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를 느끼게도 했다.

교사 확보가 큰 문제

학생과 교사의 동원은 학생의 경우는 예산인원에서 10%이내의 감소를 보였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각 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전에 교사확보문제로 큰 차질을 빚어내고 있기도 하였다. 특히 주교 각부의 경우에는 주일 출석 인원의 90% 이상이 참가했기에 그만큼 수준의 교사가 필요하다. 매년 겪는 교사확보의 문제에 교회 전체적으로 통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행사 때마다 곤경과 각 부의 상호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주교 한두 부를 빼놓고는 원만했지만 교사 확보를 위해 무척 애먹었다는게 실무자들의 이야기이다.

비좁은 장소 마이크 소음등

II부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던 것있지만, 교회 내에서 실시한 I부는 장소의 협소, 운동장, 마이크 시설, 선풍기시설비미, 환기문제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복을 피해서 실시한 주교는 법로 장소문

1976년도 주교 여름행사 현황

	각부명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주 제	참가인원		소요예산 (원)	비 고
						학생	교사		
I 부	영아부	제 3 회 계절학교	8.18-8.20	우리 교회	언제나 예쁘게	146	25	175,910	
	유치부	제 22 회 여름성경학교	7.26-7.29	"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305	30	121,130	*학부모포함
	유년부	"	8.2-8.5	"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292	83	239,655	
	초등부	"	7.26-7.29	"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337	73	220,000	
	"	제 4 회 여름수련회	8.2-8.4	성미가엘 신학원	참된 예배를 드리자	110	38	481,220	
II 부	중등부	제 14 회 하계수양회	7.27-7.30	불암 수양관	귀히 쓰이는 그릇	280	38	980,760	
	고등부	"	7.27-7.30	충신대	열감을 감절이나 내게 주소시	182	20	758,235	
	대학부	제 7 회 하계수양회	7.19-7.23	충북.대포수양관	복음에 합당한 생활	100	15	731,640	
	청년부	제 6 회 "	7.15-7.17	입석 대와캠프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120	4	447,700	
	노년부	제 1 회 "	8.23-8.24	우리 교회	우리의 죽은 날로 새 물도다	85	15	122,950	
			36일			1,956	331	4,279,240	

* 1976년 여름행사 결과 보고서(교육위원회)에 의함.

* 세신자부(어린이)는 유년·초등부에 포함되었음.

* 인원은 일 평균인원임.



◇ 이 기간 중에는 각종 대회도 열렸다(중등부).

제가 없었다. 교회내에서 실시 할 경우 가능한한 타 주교와의 중복을 피한다면 문제는 다소 해결되리라 생각 사건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기 선포기 문제로 관계 부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원만한 준비 진행

지난해의 평가는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준비기간을 한달에서 석달까지 잡았으나 장소의 문제(II부)는 무척 곤란한 모양, 실시 며칠 전에 옮겨야 하는 부도 있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집중적인 토의와 준비과정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계속되는 주교의 행사들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다.

대부분이 지난 해의 평가를 보고 약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하며 전체적인 진행에 만족한 편들이었으며 유치부 경우는 예상보다 넘쳐 차질이 생겼다고 다소 행복할 교민을 말하기도 하였다.

행사 후 자체평가

전체적으로 계획과 별 차이 없는 진행으로 이끌어졌으며 급변한 모든 부가 행사후에 자체 평가회를 가졌고 교육위원회 행사분과에서 실시한 여름행사 결과보고서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본을 남겨 주었다.

이제 각 주교의 특기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영아부: ① 자모교육에 찬송공부 실시.
② 어린이들이 누워서 들 수 있는 시간을 내년에는 갖기로 함.
- 유치부: ① 학생, 교사 합동으로 에덴동산(공작)을 만들어 수주간 전시함.
② 교사 부족의 심각성.
- 유년부: ① 교사를 위한 오후의 특별시간을 가짐(Sing along, 야외 친교회, 일일다방 등).
② 교사 선정의 문제성.
- 초등부: ① 예산 부족교사 찬조금으로 충당.
② 행사후 평가 위해 교사·학생의 설문 실시.
- 중등부: ① 분반공부 대신 특강으로 대체.
② 적절한 장소의 선정문제.
- 고등부: ① 전체적으로 무난.
② 교사의 절대적 부족, 선전 부족.
- 대학부: ① 학생 중심적 주도적인 진행.
② 전체적인 통일성의 결여.
- 청년부: ① 사경회 중심 수양회의 큰 성과.
② 조직과 진행의 차질.
- 노년부: ① 첫번째 수양회, 활동실시, 각부서의 협조, 교사의 헌신적 봉사.
② 사진촬영과 배부문제.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
.....님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
.....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들.....
.....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침례회출판사 발행

4·6판 265면, 값750원

여기, 사람을 신앙으로 새롭게 한 비결이 있다. 이 책이 새로운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다. 성경만큼 오래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게 하는 책이다.

오늘날 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힘을 놓치고 있는 현실을 애처로이 생각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을 통하여 반사된 영적 생활의 규범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 잭·테일러 목사의 뜨거워진 성령의 불은 온 교회로 불을 붙였고 서부 텍사스를 북쪽으로 휩쓸게 했던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8년 후에 목회를 하는 동안 인간 지혜의 막다른 길에 부딪히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온 생애에 변화를 가져온 주님의 종이다.

특히 그가 체험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 이상 없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비결은 주님(성령으로 임재하시는)을 영접하는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서 이론 아닌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정관일 목사(도서실장)

구 역 공 과

▷11월 공과◁

제 8 장 주기도의 송영

성경/마 6:13

찬송/새 33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에는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각주에 “고대사본에, 이 괄호 내 귀절이 없음”이라고 설명한 대로 런던에 소장된 시내 사본(제 4세기에 쓰여진 것)과 로마에 소장된 바티칸 사본(제 4세기에 쓰여진 것)과 베자 사본(제 6세기에 쓰여진 것)에 이 송영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송영이 런던에 소장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제 5세기에 쓰여진 것)과 파리의 레기우스 사본(제 8세기에 쓰여진 것)과 토사노 사본(제 6세기에 쓰여진 것) 등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나 이 송영부분을 옛날 예배의식이 삼입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거시키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이다.

더우기 위에서 지적한 세 유명한 사본에 기록된 이상 성경 원본에도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이는게 건전한 판단이다.

그러면 이 송영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위에서 기도한 여섯가지 간구를 재확인하는 간구의 한 형태이다. 먼저 「나라」 즉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며 또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런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 즉 권세(power)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권세란 헬라어로 두나미스(dynamis)란 말인데 여기서 영어의 다이내마이트란 말이 나왔다 즉 하나님은 그 무엇도 깨뜨리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다. 이 하나님은 모든 선하신 것, 모든 필요한 것을 그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것도 영원무궁토록 말이다.

이 송영은 두번째로 감사와 찬미의 한 형태이다.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것은 찬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찬미와 감사이다. 찬미와 감사는 본질상 같은 것으로서 성도의 의무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뿐 실제로는 자기가 차지하려는 교만이나 탐심을 가질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우리는 생활로도 찬미와 감사를 해야겠다.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로도 하나님만을 찬

미하며 감사하자.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9 장 아멘의 신앙과 생활

성경/마 6:13

찬송/새 602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아멘의 신앙과 아멘의 생활에 있다. 그러면 아멘의 뜻은 무엇인가?

1. “아멘”의 뜻

아멘이란 본래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서 「돌보다」 「믿는다」 「진실로」 등 여러가지 뜻이 있다.

주기도문 끝에서 「아멘」이란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이다」란 뜻이다. 이 아멘은 진실의 표현이며 「신앙의 표현」이다. 응답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특별히 「송영에서 그리고 예배의식 때 사용되어 왔다(시편 106:48; 대상 16:36)」.

신약시대에 와서 세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제 22:20), ② 기도할 때에 대표기도자에 대한 동참한 이들의 응답(고전 14:16), ③ 송영에서(제 1:6; 5:14) 사용되어졌다.

2.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 의존을 말한다. 자기에게 평안이 올 때에는 물론 필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고 또 그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실 것(시 17:8)을 믿는 것이다.

아멘의 신앙을 가진 가장 대표적 인물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창 12:1) 그 「말씀을 좇아」(창 12:4) 갔으며, 백세에 남은 이삭을 달라 할 때에(창 22:2)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면서 바치려한 그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다. 즉 아멘의 신앙이란 「여호와 이해」(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는 신앙이요 율치령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욥 13:15의 작주 참조)는 절대적 신앙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다.

3. 아멘의 생활

아멘의 생활은 감사의 생활이요 찬미의 생활이다. 이 감사는 아멘의 신앙에서 온다. 때로는 우리 눈에 불리하게 보이고 잘 이해가 안 가도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아멘의 생활의 기초가 된다. 그 표현이 바로 감사이다. 감사의 방법은 마음과 입술 그리고 실제 생활로 계속해서(고전 1:4; 골 4:2) 어떤 환경에서도(빌 4:6) 하나님께 해야 한다.

아멘의 생활의 또 다른 특징은 찬미의 생활이다. 성경엔 하나님께 대한 찬미로 가득차 있는데, 특히 시편엔 우리가 어떻게 찬미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특히 시 95—100편을 참조할 것). 사실 찬미의 입이 벌려질 때에 성도의 참 기쁨이 찾아온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엡 5:19) 찬양하자.

(*)

구역소식

축하합니다(9월 중 결혼)

- 김영은·한금자/주교교사—12일, 충현교회
- 정관춘/정동훈씨 이희원 권사 딸—11일, 충현교회
- 김동환/김순애 여사 아들—11일, 엠베서더 호텔
- 고영진·민원기/김신도 권사손자—13일, 충현교회
- 김명희/화원구역—14일, 대한신학교 강당

위로드립니다(9월 중 별세)

- 김동창/목정구역—16일
- 오생금/오정현 오정수 집사 부친—19일

9월 중 해외이주 가족

- 권석기씨/75년도 청년회장, 주교교사—3일, 미국
- 노임선씨/천호구역—15일, 브라질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당회장과 지교회 위한 기도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세계선교대회를 비롯하여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선교대회를 마친 김창인 목사님은 계속 미주—필라델피아, 토론토 제일장로교회, 시카고, 엘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본 교회 선교지인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거치시어 오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승리하신 목사님이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 해외에 처음으로 충현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5일 주일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37명이 모인 가운데 첫예배를 드림으로 뉴욕충현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9월 9일~12일까지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교회 해외선교에 순수한 복음의 생수가 땅끝까지 미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

· 홍종만 목사님은 사도님과 세 자녀를 동반하시고 지난 9월 23일 홍콩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가신 홍콩은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드는 혼잡한 국제도시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오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과 며칠 전 선교지를 바꾸어 인도네시아 서선교사님과 합류하신 이연호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외과 의사로 일본에 가서서 평신도선교사로 열심히 일하시는 유병세 집사님이 선교임무를 능력이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구역장 노트⑨

신앙지도의 지침 (1)

백 성 룡 목사
(구역권찰회장)

구역원 교육과 훈련은 ①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유동성에 상응한 구역운영을 위한 행정력 배양과 ② 교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병신도 훈련과 ③ 확실하게 교인을 돌볼 수 있는 권찰을 키우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월간충현 3월호 p.15 참조). 행정과 심방에 관하여서는 미급한 대로 이미 말한바 있었으며 이번에는 신앙지도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구역원들을 지도하는 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과제

이것은 건물에 비교하면 기초석과 같은 것이다. 생활의 기본자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위에 따라오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잃게 된다.

(1) 생활의 목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 몸은 주님께서 피흘려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전 6:29).

(2) 생활의 세가지 원칙: ① 항상 기뻐할 것.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감격이 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만일 기쁨이 없다면 믿음에 흠이 생긴 줄 알고 즉시 기쁨을 되찾도록 힘써야 한다. ② 쉬지 말고 기도할 것.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음으로써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③ 법사에 감사할 것. 구원받은 사실과 더불어 받은바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양으로 살고자 해야 한다(살전 5:16-18).

(3) 생활의 보람을 자유와 사랑에서 찾기를 배워야 한다(갈 5:13).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주신 자유를 계속 누리는 방법은 ① 성령의 은혜를 계속 간구할 것과(고후 3:17) ②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과(요 8:32) ③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이다. 사랑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보존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동시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이므로 여기서 진정 삶의 보람을 찾는다.

2.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생활

(1) 성경공부에 힘쓸 것: 무엇보다 앞세워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성령시대에는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사건이나 혹은 꿈이나 환상이 뜻을 가지려면 성경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탈선할 위험이 있다. 다독·정독·암송 등을 권장하고 스스로 해석하고자 하지 말고 교역자의 지도에 따라 체계있게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다.

성경 암송·고사·퀴즈대회 성료

—9월 30일, 10월 3일에 걸쳐—



〈빌립보서 성경고사대회의 한 모습〉

우리교회 설립 23주년을 기념하며 실시한 성경암송·고사·퀴즈 대회가 지난 주일 모두 마쳤다. 이번 대회

는 퀴즈부가 9월 26일, 암송부·고사부가 10월 3일에 실시하였다.

빌립보서 전장을 주제로 열린 본 대회는 처음의 암송대회를 각 참가자의 능력의 정도에 맞추어 퀴즈·고사·암송 대회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처음 실시되는 고사대회 등으로 더욱 성황을 이룰 수 있었다.

지난번 시편 119편 암송대회, 에베소서 암송대회에 이어 실시된 이 대회는 암송부·퀴즈부·고사부로 나누어 진행, 실시하여 퀴즈부에는 54명, 고사부에는 67명(중등부 44명, 고등부 16명, 대학부 2명, 산업전도교육부 1명, 제일성가대 2명, 남전도회 1명, 장년부 1명), 암송부에는 100명(영아부 3명, 유치부 12명, 유년부 12명, 초등부 6명, 고등부 3명, 대학부 1명, 청년부 5명, 성가대 1명, 산업전도교육부 3명, 새신자부 6명, 장년부 44명, 노년부 4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보았다.

시상식은 10월 10일 주일 저녁에 있게 된다.

적 합의자

이에 앞서 학습, 세례문답자를 위한 교육이 9월 27—30일 사이에 매일 오후 7시에 있었다.

산업전도회 월례회 특강

—우리 직장의 복음화 어떻게 시작할까—

산업전도회(회장 최석주 장로) 세번째 월례회가 7월 12일(화) 저녁 7시부터 당회실에서 열렸다. 「우리 직장의 복음화·산업사회의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지난 7월에 출범한 산업전도회는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회원간의 대화를 통한 모임이 그간에도 수차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월례회에서는 「우리 직장의 복음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제목의 특강을 한광일 전도사에게 들을 예정인데, 한전도사는 이 방면 특히 청소년 지도에도 많은 경험을 쌓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전도회에서는 본교회 성도로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사람, 직장 복음화에 뜻을 둔 이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이 선교사도 인도네시아로

—돌연 흥해지역에서 선교지 바뀌어—

지난 8월 6일 대한항공(KAL)편으로 선교지 흥해지역으로 떠났던 선교사 이연호 목사는 현지 특수 사정으로 부득이 철수,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이 선교사는 앞으로 서만수 선교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해외 한인교회에서 현금 보내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선교를 위한 현금이 해외에서 담지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인선교교회(이동규 장로, 임현덕 장로, 김성관 집사 참석)에서 1,128달러, 미국 펜라델피아 한인제일교회(이종윤 박사 시무)에서 230달러,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김용출 목사 시무)에서 100달러를 현금해 왔다.

추기 성례식 다가와

—성찬식은 10월 17일 주일에—

매년 봄과 가을에 나누어 실시하는 성례식이 금주간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추기성례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문답……10월 14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10월 15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② 세례식……10월 15일 오후 7시 30분
- ③ 성찬예식……10월 17일 I·II·III부 예배시에
- ④ 문답자적

⑦ 학습……교회출석한 지 6개월 이상된 사람으로 만 14세 이상

⑧ 세례……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

⑨ 입교……유아세례받은 사람으로 만 16세 이상

⑩ 유아세례……만 2세 미만의 아기로 부모의 신앙

뉴우욕에 충현 지교회

—지난 8월 15일, 당회장이 참석—

지난 8월 15일 미국 뉴우욕시에, 충현교회 지교회가 설립되었다. '오래 전에 당회는 해외로 이주하는 충현교회의 식구들을 위해 미국에 뉴우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세 곳 정도의 지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당회는 지난 봄 미국으로 가시는 김광철 장로를 미주선교지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계획은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미주여행을 계기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충현교회의 첫번째 해외 지교회가 된 뉴우욕 충현교회는 지난 8월 15일, 당회장 김목사를 모시고 37명이 모여 첫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 22일 주일에는 47명, 29일 주일에는 59명이 모였다. 처음 모인 37명중에는 대다수 충현교회 출신 성도들이었다. 본 지교회는 아울러 9월 9-12일까지 김창인 목사를 강사로 하여 부흥회를 갖고 이 교회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였다.

당회는 지교회 설립을 축하하며 한글타자기 1대, 성가대가운 50착(남 20착, 여 30착), 성찬기 10조, 성경과 찬송가 각 100권씩, 주일학교 각부 공과책 등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교회에서도 설립기념으로 우리 교회에 도서 1,000여권을 발송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본 지교회는 우리교회가 해외에 세운 첫번째 지교회이며, 우리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으며 세워졌고,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교회대항 친선체육대회

—대학부에서 참가, 여의도에서—

한글날인 어제 우리교회 대학부는 인천송의감리교회가 주최하여 여의도의 여의도국민학교에서 가진 교회 대항 친선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몇해 전부터 초교파적으로 서울의 영락교회와 순복음중앙교회 그리고 인천의 송의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친선체육대회를 열어 왔는데 해마다 바뀌는 주최측이 금년에는 송의감리교회가 맡았다고 한다.

홍종만 목사 홍콩으로 부임

—우리교회에서 파견하는 세번째 선교사로—



홍콩과송 선교사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던 홍종만 목사가 지난 9월 23일 임지로 출발했다.

은 교우의 뜨거운 환송속에 부인 유복달 여사와 3자녀(3자녀는 서울에 남아 있음)와 함께 떠난 홍목사는 그곳 홍콩 한인교회의 위임목사로 초빙되어 가는 동시에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격으로 선교 임무를 펴고 일하게 된다.

〈홍종만 선교사〉

홍목사는 충현교회 초창기부터 주교 교사, 성가대 지휘, 제직 등으로 봉사하였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서만수 목사·이연호 목사에게 이어 세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홍콩은 지리적 여건 및 홍콩의 특수 상황으로 보아 우리교회의 꿈인 동남아선교 및 중증, 나아가 북한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까지를 전망할 수 있어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홍종선교부발: 제1선〉

23일 오후 7시 30분, 홍콩에 무사히 도착하여 마중나온, 교회 임원들의 안내로 교회사택인 코리아센터 빌딩 10층 7호실에 여장을 풀음.

24일 오전 중에는 교회역원과 함께 빌딩 내에 입주해 있는 영사관, 무역협회,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취임인사를 함. 26일 주일에는 신임목사 환영 예배가 있을 예정임.

토막소식

- *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외국에서 순회집회 인도중이다.
- *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귀로에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둘러 11월초에 돌아올 예정이다.
- * 교회는 장로장립식을 11월 11일(목)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 * 제61회 총회(9.23-27. 총회신학대학)에는 김기정 장로(남전도회 회장)가 총대로 다녀왔다.
- * 진도위원회는 국군수도통합병원 군종과에 ① 매월 1회 진도대원을 파송하며 ② 신·구약성경 50권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 * 진도위원회는 통일촌교회의 성전 보수에 보조기로 하였다.
- * 진도위원회는 수원북부교회와 상계동성현교회에 건축보조와 성전 보수에 보조기로 하였다.
- * 성경학원은 25-27일 지난번 성경 압송·교사·퀴즈대회의 내용인 빌립보서 특강을 개최한다(강사: 정기성 목사).
- * 주일학교는 각부 별로 10월 1일 교사야외예배를 실시하였다.
- * 새신자부는 10월 중순 학부감사를 실시한다.
- * 유치부는 10월 하순에 자체 행정 감사를 실시한다.
- * 유치부는 11월 첫주일 학부모 초청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 유년부는 지난 9월 24, 25일 청평청신학원 별장에서 교사철야기도회를 가졌다.
- * 유년부는 10월 24일 연구수업을 갖는다.
- * 초등부는 10월 24일 구약 중에서 성경이야기대회를 가진다.
- * 중등부는 면려회 회지「실로암」원고를 10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 * 고등부는 면려회 회지「코이노니아」원고를 10월 중순까지 모집하고 있다.
- * 대학부는 「빛의 땀가」란 연극공연을 위해 맹연습 중에 있다.
- * 청년부는 9월 19일 제8차 총회를 갖고 한형식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 * 청년부는 10월 9일 도봉선에서 산상예배를 가졌다.
- * 미국에 사시는 교우 한기복 선생은 월간충현을 받아 보고 감사하다고 20달러를 보내왔다.

기 자 석

○...어떤 신문의 독자를 읽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의분을 느끼다가 그 의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원적인 마음바탕에 생각이 미치자 한없는 동정과 연민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저 사탄의 권세!

○...한 응급환자가 꼭두 새벽에 통증을 견딜 수 없어, 모 종합병원의 진찰실에 들어섰더니, 당직 의사가 진찰을 하느라 마는중 하더니만 이상이 없으니 진찰비나 내고 돌아가라더라. 그러나 환자가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어 그 아내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지만, 그 의사는 「이상이 없다면 없는 줄 알고 돌아갈 일이지, 왜 시끄럽게 구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심지어는 옆의 의자를 들어 내던지려고까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까스로 말려, 하는수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정확한 진단을 친절히 받고 치료를 신속히 하여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는 내용이였다.

○...기자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칼빈주의적 성경원리에 의거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이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청지기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를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칭한다(벧전 4:10). 그러므로 작자가 자기에게 가장 교유하게 가장 알맞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물려주신 직업을 통해 선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교회에서 성장한 어느 젊은 의사의 실천적 청지기생활의 단편을 소개함으로써 뭔가 시사할 수 있길 바란다. 예비교육에서 목사가 모든 질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말하자 동료 의사가 그전 현대 의학에 무식한 광신자의 헛소리라고 공박했다는 것이다. 이 우리의 친구는 스스로 질병의 퇴치자임을 자부하는 그 오만한 동료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려고 비유를 들어 그 생각의 허망함을 깨우쳐 주었다. 어떤 건물에 전기고장이 생겼다. 전기 기술자가 아무리 배선을 점검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그 건물의 설계자는 모든 배선관계를 직접 설계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당장에 고장을 지적하여 고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의사는 어디까지나 전기 기사에 불과하다. 그는 제한된 자기 능력 안에서만 의술이 가능하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요 그것을 의사를 통해 역사하실 따름이다. 당신의 의술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행복과 안일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 복종하고 그의 신하신 뜻대로 당신의 의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 인술을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직업관이고 청지기 의식이다.

○...그는 진찰을 할 때도 절대 자기 기술을 의지 안한다. 먼저 환자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그도 기도한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피차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환자의 병은 의사인 자기를 통해 정확히 진단되고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이 친구의 의술의 전부이다. 그는 자기의 직업을 이룬어감에 있어 조금치도 가식이나 위선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믿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링컨의 말대로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직업을 통한 선한 청지기의 생활에서 무엇을 얻는가? 그는 재물을 원치 않는다. 명예를 원치 않는다. 출세를 원치 않는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로 그는 만족한다. 그것은 비록 부스러기이고 부수적일망정 그것만을 위해 날뛰고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야 백배나 나은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성경 말씀이 한마디로 표현한 그의 생활철학이다.

(용)

결집하고 나서

*...이번호에는 특별히 해외에서 온 편지들과 해외교우의 주소록을 실는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어 우리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그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월간충현」지는 앞으로 더 관심을 쏟을 생각이다.

*...신성종 목사의 「기독교의 직업관」을 실는다. 금년 들어 계획한 「기독교인의 가치관」 시리즈의 5번째로 잘못 갖기 쉬운, 그래서 열심있는 사람은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직업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쾌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역사적인 면에서부터 다뤄진 금번의 「기독교의 직업관」은 누구누가 한번씩은 읽어보고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느덧 10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금년도 중반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피며 자신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월수)

<표지 설명>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10월에는 성례식이 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보는 일 말이다. 모두가 자신을 돌이켜 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야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월간「충현」10월호 통권 제34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10월 10일 발행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선교사 홍중만 목사 가족 5명이 지난 9월 23일 홍콩으로 떠나셨다. 사진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의 모습(오른쪽).



◇ 청년부는 지난 9월 5~7일까지 수원 중앙침례 교회의 이동원 목사를 모시고 「크리스찬의 새 생활」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는데, 연인원 1,000명이 참석하는 성황이었다.



◇ 20년 근속·봉직자에 대한 공로표창을 지난 9월 첫주 일 교회설립23주년 기념일 저녁에 있었다. 수상자는 16명이었다.



◇ 우리교회 설립23주년을 기념하는 성경(빌립보서) 암송·고사·퀴즈대회가 지난 9월 26일과 10월 3일에 실시되었는데, 사진은 퀴즈대회 광경.



◇ 대학부 성가대는 지난 9월 11일 저녁 제4회 향상을 악회를 열었다. 금번 음악회에는 한국 작곡가들의 곡만 연주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2)

아래는 금년 여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전도대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제 2 차 명단입니다.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횡성장로교회

김호웅 주경란 심진문 박천수 문명래 조현기 이대아 이현순 장혜정 한상욱 이우형 홍은표 최종호 김윤미
 박순일 홍문표 오옥순 심정애 김원재 정병욱 조만호 박광숙 송동자 조옥화 손오중 최동녀 안내성 권기영
 김동수 김우남 황동욱 윤필남 홍문표 홍문표 황영관 이병석 최미숙 이기태 최재희 이보연 김은자 이병석
 이창호 최필란 방순복 김인숙 이원봉 이용정 양근호 심상호 최영희 이종욱 김현태 최정화 조경숙 홍영표
 김영순 김용기 김영애 원정아 이금용 최재운 정철이 정상연 한장봉 안효섭 안철 아주머니 최기영 이상돈
 김기성 김영복 강승만 이선재 전마경 이필화 김명숙 원상철 권영상 주 인 한상정 주본철 최형기 이영미
 서상학 이명옥 윤대수 정웅순 김애연 김영예 최순옥 전옥수 이선우 이순근 최용원 장동주 전인자 정순일
 고영현 김종태 정명화 안희봉 안희자 김금자 이재희 유양희 박영춘 김근열 이종락 한종호 김기환 김용섭
 박창현 석인환 이숙자 탁희상 석창욱 엄수호 박종식 이정순 김명수 김기영 고순종 최광준 이서운 김현열
 허순자 김영희 유성철 조성환 김경애 김순녀 이봉록 김영숙 영숙모 김순이 이종윤 신현희 윤경복 한순복
 이순자 김원순 최옥이 김봉희 박영숙 김선희 김진석 김혜숙 홍경희 한창배 이영희 신화영 양영신 최진숙
 원가희 조복력 유기태 정숙철 서희철 김은수 양영신 유근욱 허영신 원음전 김복순 이승재 고희수 황창욱
 김민순 유택수 황동렬 김금순 김정순 이정민 조순형 이성호 박준식 이병철 신희선 홍기순 이호재 이종만
 지창수 이운형 영용섭 조철순 최효자 강홍훈 박영규 최하자 조한홍 박혜경 김인수 박문임 오순화 김중숙
 문선희 장한이 김철승 손병록 박종산 위원이 김봉기 김봉순 임정식 임정식 한상철 허만희 허종태 유기호
 연철규 김명숙 김학래 방순복 장승계 김정기 구본정 정호찬 박성수 양근호 박성호 안승하 장덕윤 이연숙
 홍문갑 허연순 박순자 이은주 이병승 김돈수 김영옥 이명길 김명수 박용모 박예선 박형선 박순환 안인숙
 최만기 김기철 조명석 양재훈 이장승 박관영 김달복 최보선 허윤실 공경남 김진숙 권순덕 최정순 안부연
 신호준 탁연주 김동화 조순진 김기덕 김현자 이형규 조규봉 이정조 장월계 허영희 박대역 이승애 고복순
 전인석 김광배 김근봉 최상호 백기필 심상준 한상철 이상득 이인직 이희남 김순자 황명옥 원용운 손영복
 전종규 이정환 이도행 조현옥 신재건 홍순자 조인숙 김윤주 신만기 오봉오 오연희 김지근 정경재 고복희
 심혜선 송혜경 김동숙 신원섭 김정숙 조형기 이경석 김영철 김 학 정병욱 변성근 영예하 이명옥 이봉재
 변상규 심복순 이영희 유봉석 박종애 전인원 김영상 민영규 전홍희 김현승 김정현 최태수 김각동 박성규
 전인용 박성수 김두환 조봉식 김영택 윤기운 양재필 유영희 원유옥 도문기 전상국 조재영 이현규 김기영
 김유원 이현진 장윤집 김기형 (340명)

□ 강원도 양구군 도사리교회

김영근 지만길 지정근 이강준 김승해 박윤갑 황인복 이진화 김수협 강대성 김만태 박현철 홍순관 양기환
 이장순 김영복 홍순기 이옥희 함옥봉 모정애 이희숙 이도하 박문숙 박문숙의 모 정옥남 최영애 장옥순
 허준제 강경자 김덕순 최옥자 최금순 김금옥 이연희 이인화 최순옥 정금자 정순옥 이상대 김영근 이봉애
 유영진 오선옥 이정시 장은혜 신정순 김금순 김경자 신정옥 이항숙 최오녀 최복순

※군인전도에서 별도로 71명 결신자가 생겼음. (123명)